

두 가지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제단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에 마귀 사람이 이루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 사람은 점점 시들어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점점 강성해지면 마귀 사람은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서 완전히 시들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별이 안 되어가지고 마귀 사람이 왜 이루어지지 않나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사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마귀 사람이 있어가지고 승리제단에 처음 나오면 마귀 사람이 이루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마귀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의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지, 마귀 사람은 시들 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말하 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고 했 죠? 그건 마귀 사람은 그게 안 되어집니 다.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아 요. 왜,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 이 강합니다. 마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 고 마귀 사람은 바로 이제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되 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래서 자기 자신이 마귀라는 걸, 이거를 내 가 가르쳐 주는데 이제 구세주의 말을 그 저 그대로 마귀 생각대로 판단하고 마귀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귀 식으로 생각을 하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하는 말자 체가 바로 '나는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나는 바로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마귀 새 끼요, 나라는 것은 죽어 마땅한 존재인 고 로 나라는 것을 짓고 죽어야, 바로 하나 님의 사람 나라는~ 하나란 사람~ 나라는 그 의식이 바로 점점 강해져서 바로 하나 님의 사람이 이간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 는 거지, 마귀 사람은 절대로 구원과 상 관이 없고 하나님이 되려야 될 수가 없습 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것은 자신이 마귀라는 것을 알라는 뜻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말하 기를, '구원의 방법은 말기 데 있다.'그 랐죠?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나님이 하나 님의 영을 무럭무럭 자라게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지 바로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 으면 점점 하나님의 영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생명이 하나님 의 영이라고 했죠? 또 이제 그대로 여러분 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하 는 말은 바로 '나라는 것은 마귀라는 겁 니다. 나라는 것은 마귀라고 자위를 하면 서 바로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공경을 해야 그래야 바로 자신 속에 하나 님의 영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이제 그대 로 힘이 세지는 고로 이간자가 되는 겁니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왜, 이 사람더러 구세주라 고 하나 하면, 구세주는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구세주는 영생 얻 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구세주이지, 그냥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구세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세주 노릇을 해야 구세주이지 구세주 노릇을 안 하면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여



구세주 조희성님

러분들이 이간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어 야 구세주가 되는 고로 구세주가 되어야 천당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천 당에서 살 존재는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 닙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알고 항상 '나를 짓기'고 '나를 마 귀새끼라고 여기면서 '나를 짓기'는 생 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전당이 되어야 병도 낫는다

'나라는 의식은 마귀인 고로 '나라는 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몸 안에 병이 낫는 것도 마귀 몸이 병 이 나오려고 하면 안 낫습니다. '나라는 것이 병이 나오려고 하면 병이 낫겠어요? 병이 안 낫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신이 내 마음 속에 들어 와 있어야 하나님의 천당이 되어버립니 다. 몸이! 자기의 몸이 전에는 마귀의 천

당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속에 계시면 바로 이제 몸이 하나님의 전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당이 되어야 병도 낫고 영생도 되어지 고 이제 이간자가 되어서 완성자가 되어 서 이제 그대로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몸 이 강성해져서 그대로 병마가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승리의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면 절대로 그 몸은 하나님의 전당(殿)이 되어지는 고로 절대로 그 하나님의 전당은 병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병이 걸 린 몸이라고 하더라도 병이 나아버립니 다. 하나님의 전당이 되어버렸을 때 그렇 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 당이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초초로 구세주 얼굴을 바라보라고 했죠? 그 구세주 얼굴이 삼위일체 하나님 얼굴이에요. 인간 의 얼굴로 보면 그건 착각입니다. 격암유

록에 써 있어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닙니다.'사람같이 생겼죠! 이것은 마귀를 점 령하기 위해서 마귀를 때려죽이기 위해 서 마귀 탈을 입은 겁니다. 사람 몸을 입 은 것은 마귀 탈을 입은 겁니다. 아시겠어 요?
그래야 마귀들이 마음 놓고 상대를 하고 마음 놓고 이제 마귀 때려죽이는 도수 장에 들어온다 말이예요. 여기, 여기 이 렇게 마음 놓고 들어오는 것은 사람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 태로 나타나면 여기 한명도 못 들어옵니 다. 무서워서. 아시겠습니까?

은 우주를 다스리는 전자전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탈을 입으 러니까, 바로 마귀가 뭐 어디 공중으로 떠 다니고 뭐 어찌고 그러는 데, 그건 다 허 트 소리입니다. 물론 마귀 대장이 공중권 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거 이미 이 사람 밑살에 있을 때 때려 죽였어요. 때려죽 였기 때문에 마귀 대장은 없습니다. 이 공 중에 지금 구세주가 올라가 있습니다. 구세주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구세주의 분신이 은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지가 22 년째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세주라는 그 존재가 완성자의 존재고 바로 마음대로 전자전뇌자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고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5대 공약을 했던 거지 그런 능력이 없이 쥐빨도 아무 실효도 없이 5대 공약을 했다가 돌에 맞 아서 죽으려고 그런 것을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니까 "공산주의 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공산주의 없 애버린다.'해놓고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다 차들을 들고 이 사람 해골을 칠 겁니다. 내가 해골을 치라

고 했어요. 거짓말쟁이는! 분명히 이야기 했죠? 또한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풍운조 화를 마음대로 한다. 태풍이 불어오지 못 하게 하고, 여름장마 비가 못 오게 하고, 풍년뜰게 하고, 또한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 제단 식구 쳐놓고 이거 모른다면 승리제 단 식구가 아니죠?

이 사람이 "전쟁, 우리나라에서 못 일 어난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나라는 하나 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 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고로 그런 고로 우리나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인 고로 전쟁 일어나면 많은 사 람이 죽으니까 구원 얻을 사람이 적게 되 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새로운 영생론: 늘 웃어라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영생 얻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슴 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늘 웃어라, 웃으 면 영생 얻는다." "웃으면 바로 이제 하나 님이 되게 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 죠?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분이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영생의 확신을 왜 갖는 나하면 영생 주는 구세주가 단상에 서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구세주를 마음속에 새기면 구세주의 영이 내 마음 속 에 있다가 되는 거죠? 그때에는 바로 하 님의 전당이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몸 이 바로 하나님의 전당이 되는 겁니다. 그 래서 구세주를 마음속에 새기면 어떠한 병도 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해했죠? 어 떤 병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구세주의 전당이 되어버리면 병이 걸릴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는 몸이 되 어버리는 겁니다.*

2000년 11월 6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지난호에 이어서)
“그건 안 돼, 피를 흘리는 일만은 안 돼.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있다고 죽여 서야 되겠느냐, 죽이지는 말고 이 빈들의 우물 속에 빠뜨려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자.”
일 년 전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적이 있는 르우벤은 구덩이 속에 요셉을 일단 빠뜨렸다가 아무도 없을 때 팔레 요셉을 구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 버지 이삭으로부터는 밖에 나 있는 자신 의 처지를 어찌하든 되돌려놓으려는 속 션이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 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 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려놓았더라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 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 다라
한편 레아에 속한 형제들을 찾으러 서

《3장 야곱의 하나님》

(13)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이 요셉을 구해줌

쪽으로 향한 단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세겔 들판에서 보았던 그 낯선 사람을 또 만났던 것입니다. '우 리가 세겔에서 낙타를 타고 질주하여 이 곳 도단에 왔는데, 어찌하여 이 낯선 사람 은 아무 탈 것도 없이 우리보다 먼저 와 있을까?' 하고 단은 의아하게 생각하였습 니다.

그 낯선 사람이 단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너의 아비와 라헬이 너에게 정자축복을 한 사실을 비 밀로 부쳤느니라. 네가 태어날 때 정자상 속을 한 고로 너 자신도 알 수 없느니라.



너는 낙타를 매어둔 곳, 너의 종들이 기다 리고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리니,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도 주께서 예비하신 이 일을 발설치 마라. 기랴아르바(헤브론)의 마뜨레에 있는 너의 아비 야곱에게도 그 리할 것이니라. 다만 요셉이 애굽을 처리 하는 재상이 되거든 그때 이 일을 아비에 게 고하여 너의 아비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장래에 너의 후손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주(主)가 나오시리니, 그 주가 곧 태초의 하나님이고, 마지막 하나님이니라.”

창세기 40장
16절: 단은 이스마엘의 한 자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17절: 단은 길의 뱀이요 침경의 독사로다. 말을 물을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3)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이 요셉을 구해줌

요셉은 저 멀리 형들이 있는 것을 보았 습니다. 그는 형들이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는 줄도 모르고 형들이 있는 데로 숨차 게 달려갔습니다. "형!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형들을 찾아 보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왔어." 하 고 숨을 헐떡이면서 요셉이 말했다.

“아버지가 너를 금지욕으로 키우는 데, 너를 이 먼 곳까지 가는 것을 허락했 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구먼. 그래 어떻 게 알고 너 혼자 왔니? 흥, 스스로 자기 무 덤을 찾아왔잖지. 요셉! 너는 너무 똑똑 해서 탈이야.” 하고 레아의 자식들 가운 데에 유다가 말했습니다.

“유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단 형 그리고 납달리 형과 함께 왔던 탈이야.” 하고 요셉은 대꾸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유다가 납달리 요셉에게 달려들어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시므온은 요셉의 입에 재갈을 물리 고 그가 입고 있던 채색옷을 벗겨 취한 다음에 넝쿨로 양팔을 묶었습니다.

“단과 납달리가 요셉을 찾으러 이곳으 로 오기 전에 빨리 구덩이에 빠뜨리자!” 라고 유다가 재촉하였습니다. 레아의 자 식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 다. 그리고 유다가 솜뽀를 죽여 채색옷 에 피를 적신 다음에 그 형제들과 더불어 그 구덩이에서 동쪽으로 5리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요셉의 곁옷을 일부러 떨어 뜨려 놓았습니다.

요셉과 동감네기가 되는 스블론은 요 션이 갇힌 구덩이가 있는 쪽으로 수시로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개에 팔면 어때요. 요셉이 저렇게 구덩이 속에 오래

간하였다면 결국 굶어 죽 게 될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스블론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야 임마, 너는 요셉이 죽 든 말든 잠깐하지 마. 그 리고 스블론 이 녀석, 만 약 아버지에게 우리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일러바 치면 너도 똑같이 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거야!”

해질녘이 되어 레아의 자식들과 실바 의 자식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풀밭 에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저 멀리서 낙타 를 타고 “요셉, 요셉!” 하고 부르면서 오 는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요 션을 찾는 자들은 라헬의 양자(養子) 단 과 빌가야 낳은 납달리 그리고 라헬에 속 한 종들이었습니다.

라헬에 속한 자들이 오자, 레아의 자 식들은 피 묻은 요셉의 곁옷을 가리키며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이 틀림없어.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어.”라고 말했 습니다.

한편 구덩이 속에 갇혀있던 요셉은 입 에 재갈로 물린 형질을 떼어내기 위해 그의 뺨을 돌에 문질렀습니다. 뺨을 가로 질러 감겨 있던 형질이 끊어지자 요셉은 “단 형, 살려 줘!”, “납달리 형, 살려 줘!” 하 고 울부짖었습니다.

때마침 길터위를 경유하여 애굽으로 가는 아라비아 상인이 어떤 소년의 울부 짖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라비 아 상인은 구덩이에 빠진 소년을 들여다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걱정 말어! 우리가 넝쿨을 엮어



구덩이 속에 빠진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

뺨뺨을 만들 동안 잠시 기다려라. 너를 꼭 구해줄마.”

아라비아 상인들이 뺨뺨을 만드는 동안, 요셉은 자신 밖에 없는 구덩이 안에 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아,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잘 들 어라. 너는 너의 아비 야곱 집으로 돌아 갈 생각을 하지 마라. 너를 구해 주는 상 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자 식으로서 침의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짐 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라. 상인들 이 너를 애굽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꾸었던 꿈대로 너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올라 와 너에게 앞드려 절하게 될 것이니라.”

아라비아 상인이 넝쿨 뺨뺨을 타고 내 려와서 요셉의 양팔에 묶여 있던 넝쿨을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 밖으로 올라오니, 수심 마리의 낙타 떼가 줄지어 있고 낙타에 항포와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 중에 나이 많은 자가 소년 요셉을 보고 말했습니다.(다음호에 계속)*